화순, 폭염 대비 시설채소 현장기술지원 강화

7월 말까지 농촌진흥청 합동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화순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설채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강화에 나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은 최근 평년보다 빠른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시설채소 생육관리 현장기술지원단'을 집중 운영하며 시설재배 작물의 고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5월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또한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5~10℃ 이상 높아질 수 있어, 생육 장해와 낙과, 착색 불량 등 농작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주요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재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작물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폭염 피해 저감 기술 보급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 내부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광도포제 활용 기술'과 '포그(Fog) 시스템 운영 요령' 등을 중점 지도하며, 농가별 재배 환경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은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유가 상승과 이상기후로 시설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현장 밀착형 기술지도를 강화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과 농가 소득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문 열었다

기숙사·식당·북카페·체육실 등 편의시설 갖춰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농공단지 활성화 기대

함평군이 학교농공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복합문화센터의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지난달 28일 학교면 죽정리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입주기업 관계자와 근로자,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준공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준공 보고를 시작으로 기념패와 인재양성기금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교농공단지협의회는 복합문화센터 준공을 맞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기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섰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총사업비 75억 3,1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39.39㎡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에는 ▲식당 ▲커뮤니티실 ▲북카페 ▲체육실 ▲세탁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과 함께 기숙사 20실, 최대 36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생활공간이 마련됐다. 군은 센터가 근로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 복지 향상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노길상 기자

나주 산모들 9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한다

전남도 운영 지침 개정… 지역 산모 우선 예약제 도입

나주 지역 산모들이 9월부터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조리원이 위치한 시·군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소재지 산모는 최초 신청·접수 시 감면 대상자는 50%, 일반 이용자는 60% 범위 안에서 우선 예약이 가능해진다.

개정 운영 제도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전남아이톡' 전산 개편 이후 적용되며 시행 시점은 오는 9월께로 예상된다.

현재 나주혁신도시(빛가람동)에 위치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은 최근 시설 보강 공사를 마치고 재개원한 이후 높은 이용 수요를 보이고 있다. 예약 개시 후 1분 내 마감이 반복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지역 산모들 사이에서는 이용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주시는 그동안 지역민 우선 이용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전남도가 건의안을 반영해 이뤄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약 방식 개선을 넘어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상구 시장 권한대행은 "지역민 관심이 컸던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체감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준호 기자

영광,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철거 기간 운영

영광군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 및 철거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 시설물에 대한 단속보다 자진철거와 신고를 유도한다.

영광군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내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제공하며, 철거 방법 및 절차 상담도 지원한다.

자진 신고는 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광민 부군수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내 자발적 정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담양,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8월까지 대책 기간 운영… 현장중심 선제적 예방 태세 확립

담양군이 여름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피서객이 집중되는 한재골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명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한층 강화된 감시·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28일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주재로 열린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비상근무체계 운영 방안 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군은 종합대책에 따라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요원 채용·배치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시설, 수상레저사업장 등의 분야별 물놀이 시설 83개소에 대한 예방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자체 점검과 예찰 활동에 나서는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근석 산업안전국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장진성 기자

"낚시하고 상금 받자" 장흥 챌린저스 6개월 대장정 돌입

총 상금 5천만원 규모…전국 최초 장기형 바다 낚시 이벤트

장흥군과 장흥군 낚시협회에서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국 최초로 '2026년 장흥 챌린저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연중 운영되는 장기형 낚시 이벤트로, 낚시 어선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관내 19개 어선이 참여하며, 참가자는 전용 어플을 통해 예약 후 출조한 후 대상 어종 포획 실적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행사 시상은 주간·월간·연간 단위로 진행되며, 총 5천만원 규모의 장흥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주간 시상은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이며, 월간 시상은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이다.

특히, 연말 시상은 연간 랭킹 시상을 통해 ▲1등 1,000만원 ▲2등 500만원 ▲3등 300만원 ▲4등 200만원 ▲5등 100만원의 장흥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흥군 낚시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 낚시인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숙박·음식·관광 소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상금을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낚시협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가 장흥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전국 낚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방법 및 세부 운영규정은 "장흥 챌린저스" 전용 어플 및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